

# CHANNEL

2026 JANUARY

Vol.276



**우리의 2026, 지금 시작합니다**

# CHANNEL

발행처 삼성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벽호(031-946-098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home.kpmg/kr/ko/home.html

Channel 웹페이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홈페이지에서  
‘Channel’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Cover Story  
희망찬 2026년이 밝았습니다. 매일 떠오르는  
해이지만, 새해의 첫 해돋이는 언제나 새로운  
설렘과 기대를 안겨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신가요? 붉은 태양이 힘차게  
솟아오르는 표지 이미지처럼, 여러분의  
2026년 또한 열정과 도전,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 건강한 성장

- 04

CEO 신년사

미리미리 빨리빨리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 06

운영위원 신년사

희망과 도약의 2026년! 운영위원이 보내온 신년 메시지
- 08

Emerging Trends

‘2026년 국내 경제·산업 전망’ … 반도체·화장품 ‘매우 긍정적’
- 12

Team Story

디지털 재무정보 혁신 선도하는 XBRL TF팀
- 14

Client+

자연과 피부과학의 융합으로 글로벌 스킨헬스 혁신 이끄는  
지에프씨생명과학
- 16

Expert's Advice

전환의 길목, 주목해야 할 인프라 메가 트렌드는?
- 18

알쓸사전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시사·경제 용어 사전

## 행복한 일터

- 20

Hello 2026!

말띠 삼성인, ‘새해 소망’을 말(馬)해봐요!
- 22

컬처한스폰

삼성인의 마음을 터치한! 가장 기억에 남은 공연은?
- 24

인재양성소

서로에게 배움과 성장을 주는 멘토&멘티!
- 26

마음온도+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길 전하는 ‘아름다운 봉사단’
- 28

이동규의 두줄칼럼

황금같은 시절(Golden Age)
- 30

心 Care

2026년 직장인 심리 트렌드
- 32

Samjong News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시무식 개최 … 새 각오와 다짐! 外





# 미리미리 빨리빨리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 삼성KPMG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높은 열정과 책임감으로 법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로 말의 활기찬 역동성에 뜨거운 불의 열정이 어우러져 긍정의 기운이 넘치는 해입니다. 힘차게 도약하는 말처럼 흔들림 없는 추진력과 빠른 실행력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국내외 경제는 통상 질서의 재편, 저성장 고착화, 규제 환경 변화, AI 주도 산업 육성 정책 등 실물 경제에 다양한 긍정과 부정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는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2026년, “미리미리, 빨리빨리” 한발 앞선 변화와 혁신으로 새롭게 도약하며, 미래를 향하는 우리 기업들과 사회의 신뢰받는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 신뢰받는 전문가로서 우리 경제와 기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삼성KPMG를 향한 고객과 사회의 변함없는 신뢰는 높은 품질과 최고의 역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울여 온 노력 덕분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협하지 않는 품질 우선 원칙과 업무의 혁신적 효율화, 구성원들의 윤리의식으로, 삼성KPMG는 변함없이 지켜가야 할 우리의 소중한 가치인 고객의 신뢰를 위하여 우리의 역할에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며, 우리 경제와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설계를 지원할 것입니다.

丙午年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AI 센터, M&A 센터 등 업계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한 다양한 전문 조직을 통하여 고객의 요구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개편된 재무자문 및 컨설팅 본부는 최적화된 One-Stop Service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사 및 세무 등 전통적인 회계 전문가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고객의 다양한 Needs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최고의 전문가로서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기업이 한발 앞서 미래를 준비하고, Cross-border M&A, 해외투자, 관세, US IPO 등 규제 환경 변화와 기업 특성에 맞춘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며 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갈 것입니다.

## AI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를 위한 모든 것’을 갖추어 가겠습니다.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는 AI 시대로의 구조적 전환을 맞아, AI는 편리한 보조적 수단이 아닌 경영 활동의 전제 조건이 되었습니다. 삼성KPMG의 ‘Everything & Everyone with AI’를 목표로 시작했던 AI 관련 대내외 전략에 더해, 올해는 더욱 적극적이고 확대된 노력을 지속하여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함께 높이고, 구성원과 고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AI 전환 계획을 실제 변화로 만드는 힘은 인재에게서 나온다는 확신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AI를 더욱 친숙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호모 프롬프트(Homo Prompt)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AI 관련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회계감사, 세무, 재무, 컨설팅 전 서비스 영역에서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강화하여 업무에 AI를 효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반복되는 비효율 업무를 줄이고 구성원들이 전문가적인 판단과 품질 향상 등 가치 있는 업무에 보다 시간과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삼성KPMG가 업계 최초로 설립한 AI 센터와 생성형 AI 에이전트 ‘KAigen’ 등을 활용하여 기업들의 AI 역량의 성공적인 고도화를 지원하고, 앞으로 이용 편의성을 강화한 플랫폼과 시장을 선도하는 다양한 AI 관련 상품 개발로, 기업들이 AI 시대를 선도하며 성공적으로 AX(AI Transformation)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인재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진심을 담아 노력하겠습니다.

삼성KPMG는 변함없이 People First 가치를 중심에 두고 인재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진심을 담은 존중과 소통으로 구성원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인재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여 구성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환경 변화에 따라 구성원들이 원하는 다양한 경력 개발을 위해 Mobility 기회를 확대하여, 비감사 Function의 해외 파견과 Function 간 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역량 및 산업 전문성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도 다양하게 마련하겠습니다.

## 삼성KPMG 가족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맞아, 삼성KPMG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임직원과 고객, 사회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찾고 스스로의 발전을 위한 절실함과 함께 변화와 혁신으로 새롭게 도약하며 함께 희망찬 미래를 준비해 갑시다. 병오년의 활기찬 기운이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힘과 희망을 더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며칠 전 송년음악회에서 들은 ‘나 하나 꽃 피어’라는 가곡의 노랫말이 내가 너를 만나 우리가 될 때 풀밭이 꽃밭이 되고 온 산이 단풍으로 물드는 아름다운 변화를 노래하고 있어 울려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일  
삼성KPMG 회장 김교태





## 희망과 도약의 2026년! 운영위원이 보내온 신년 메시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삼정KPMG 운영위원들이 신년 메시지를 전해왔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한 각오와 구성원을 향한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다.  
운영위원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2026년의 새 희망을 그려보고, 힘찬 도약을 향한 강한 의지를 다져본다.



### Smart한 통찰력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AI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환경은 우리 감사 환경 전반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을 감사 전반에 체계적으로 접목하여 감사 품질과 효율성을 동시에 한 단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2026년 병오년은 변화와 도약의 에너지가 특히 강한 해로 전해집니다. 삼정 KPMG 임직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선도하며,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Audit 변영훈 대표**



### 검색보다 사색, 그리고 실천

AI로 시작해서 AI로 끝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잘 준비해 왔는지 잘 준비하고 있는지 자문해봅니다. 인디텍스의 전 회장 파블로 이슬라는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합이다”라고 했습니다. 함께하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발전할 것이란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새해에는 검색보다는 사색이 많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Tax 윤학섭 대표**



### 우리는 고민 해결사!

고객들의 도움과 응원 덕분에 한 해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Deal Advisory 업의 본질은 고객의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해엔 어떠한 고민이라도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한 고민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진정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Deal Advisory 김이동 대표**



### 기회는 변화의 순간에 찾아온다

매년 경제 전망은 불확실성과 위기를 강조합니다. 우리 비즈니스 역시 AI·디지털 전환, ESG, 민첩한 혁신 전략 등 고객 수요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회는 변화의 순간에 찾아온다”는 말처럼, 적응은 불편하지만 우리는 이를 잘 준비해 왔습니다. 올해 CS1의 성장을 넘어 구성원 모두가 전문가로 단단히 성장하며 크게 도약하겠습니다. 각자의 소망도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변화의 파도를 타고 함께 미래를 개척합시다.

**CS1 김진귀 부대표**



### 기민응변(機敏應變)의 2026, 변화는 기회다!

AX (AI Transformation)는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며,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CS2는 민첩한 혁신과 선제적 대응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AX 시대, 변화는 기회다” 2026년 새해,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입니다!

**CS2 신장훈 부대표**



###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또 하나의 성공 이정표를!!!

기술의 진보, 시장의 재편, 규제 환경의 변화 등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도끼는 과연 올바른 도구인지, 우리가 오르려는 사다리는 올바른 벽에 기대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가며 함께 간다면 2026년 새해에도 또 하나의 성공 이정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삼정KPMG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Risk Management 양승열 대표**



### 열정이 함께하는 희망찬 한해 되시길 기원

지난 2025년에도 우리는 신뢰받는 전문가로서 건강한 성장과 인재가 행복한 People First 문화를 위하여 모두가 노력하였습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천리마와 같은 활기찬 기운과 뜨거운 열정으로 크게 멀리 보며 함께 마음을 모아 새해를 힘차게 열어가면, 더욱 희망찬 한 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COO 이호준 부대표**



# ‘2026년 국내 경제·산업 전망’ ... 반도체·화장품 ‘매우 긍정적’



붉은 말의 해라 불리는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다. 불의 기운을 품은 말은 거침없는 속도와 도약을 상징하며, 이는 대전환의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산업 지형도와 궤를 같이한다. 이번 호에서는 불확실성을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국내 주요 23개 산업별 전망을 살펴본다.

## 불확실성의 구조적 확대와 기업 경영의 새로운 과제

기업이 마주하는 불확실성의 결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 2026년은 국내외 전반에서 저성장 고착화 및 양극화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금융·산업 구조가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적 전환기에 접어드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 속에서 주요국은 내수 부양과 AI(인공지능) 중심의 산업 육성 정책을 위해 재정 우위 전략을 도모하고, 인플레이션 우려로 각국 통화 정책의 전환 시점도 예측이 쉽지 않다. 여기에 금융시장 변동성과 환율 불안, 기술 패러다임 변화까지 겹치며 기업의 경영 환경은 복합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

## 2026년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는?

삼정KPMG는 2026년 다섯 가지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로 ▲트럼프 리스크,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확장적 재정정책, ▲확장적 통화정책, ▲금융시장 변동성을 선정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 강화와 대규모 재정 지출 기조는 글로벌 교역 구조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있으며,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경제·통상·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한층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에게 단순한 수출 감소 위험을 넘어 가치사슬 재편과 시장 포트폴리오 전환을 동시에 요구하는 구조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 2026년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

- 1 트럼프 리스크**
  - 글로벌 관세 부과 영향 본격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지정학적 갈등 소지. 2026년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정부 관세 부과 등 정책 변경 가능성
  - 무역 정책 변동성에 대비한 공급망·수출 다변화, 규제 변화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등 필요
- 2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 저성장 고착화로 경기 부진 지속, 국가·산업·기업·개인 간 자산·소득·기술 양극화 심화 가능
  - 혁신 투자 통한 생산성 강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브랜드 신뢰 구축 및 장기 성장 동력 확보 필요
- 3 확장적 재정정책**
  - 내수 부양과 첨단산업 투자·육성을 위한 대규모 재정 확대, 재정 건전성 이슈와 국제 금리 상방 압력 심화
  - 정부 정책 연계 사업 발굴, 공공 부문 협력 강화, 정책 변화에 따른 사업모델 및 세무 전략의 유연성 확보
- 4 확장적 통화정책**
  - 물가 안정 시 2026년부터 미국 중심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으나, 통화정책 경로의 높은 불확실성과 한국 등 아시아의 통화정책 딜레마는 여전
  - 저금리 환경을 활용한 금융 비용 절감, 장기 자금 조달 확대, 인플레이션 대비 원자재 조달 및 가격 전략 개선
- 5 금융시장 변동성**
  - 미국 M7(Magnificent 7)을 중심으로 AI 버블 논란 지속 및 높은 금융시장·환율 변동성에 노출
  - 시나리오 분석 등에 기초한 포트폴리오 구축, 환헤지 전략 분산 전략 등 리스크 관리 방안 필요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M7은 알파벳(구글)·아마존·애플·메타·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테슬라를 의미함

동시에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라는 장기적 압력을 받고 있다. 국가·산업·기업 간 기술·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기존의 비용 절감 중심 전략만으로는 성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전환과 AI 기반 혁신 투자는 기업 가치의 핵심 판단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내수 부양과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각국의 재정 확대는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동시에 정책 연계 전략의 중요성을 키우고 있다.

반면, 금리 인하 기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불안이 잔존하는 상황은 통화정책 경로와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이에 기업은 원자재 조달, 가격 정책, 자본 비용 등 기업 활동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시장에서는 기술주 중심의 과열 가능성, 환율 변동, 지정학적 변수 등이 뒤섞이며 기업 대응 전략 마련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기업은 포트폴리오 운영, 환위험 관리, 자산·사업 분산과 같은 구조적 대응을 더욱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 ‘반도체, 화장품’ 등 9개 산업은 성장세 지속 예상

이러한 국내외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은 기술 혁신, 수요 회복 등으로 청신호가 켜진 모습이다. 2026년 국내 주요 산업 23개의 기상도를 살펴보면, 반도체, 화장품산업이 ‘매우 긍정적’ 업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며, 스마트폰, 조선, 제약·바이오를 비롯한 7개 산업에서도 ‘긍정적’ 흐름이 전망된다.

반도체 시장에서는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AI 트래픽 증가가 이어지는 만큼 고성능 반도체 기술 확보와 제품 포트폴리오 고도화가 기업 성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산업은 K-뷰티 수출이 내수 부진을 상쇄하며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1위 수출국으로 부상하는 동시에 일본, 유럽, 중동, 남미 등에서도 K-뷰티의 저변이 확대되며 국내 화장품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 이어질 전망이다.

## 2026년 산업 전망 기상도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스마트폰산업에서는 폴더블폰 중심의 폼팩터 혁신과 AI 기능 등 고성능 구현 역량이 경쟁의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 이에 고성능 AP(Application Processor) 확보 전략과 비용 압력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제약·바이오산업에서는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까지 전 주기적 단계 내 AI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K-AI 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관련 지원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제약·바이오 기업은 전략적 R&D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에 나서야 할 때이다.

조선업은 건조한 수주잔량과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에 힘입어 안정적인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군함·특수선 시장 확대와 MASGA(미국 조선업 부흥 정책)로 인한 미래 수요 증가까지 기대되고 있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통해 은행 및 증권업의 역할도 재조명될 전망이다. 은행은 기업·혁신·첨단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주도하며, 한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제약으로 NIM(순이자마진) 하락과 수익성 하방 압력이 완화된 수 있다.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인가를 통해 증권업계는 모험자본 공급의 핵심 주체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며, 3차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분리 과세 최고 세율 인하 등 우호적인 증시 환경 또한 기회 요인이다.

### ‘에너지·유틸리티, 패션’ 등 8개 산업은 ‘중립’ 전망

에너지·유틸리티 등 8개 산업은 ‘중립’으로 전망됐다. 에너지·유틸리티산업은 석탄을 제외한 석유, 가스, 원자력, 신재생 등 주요 1차 에너지원을 중심으로 2026년 국내 총 에너지 수요의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에너지믹스 또는 재생·원전 확대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기업들의 에너지원별 비즈니스 모델 재편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패션산업은 양극화 심화로 프리미엄 수요와 가성비 수요로 분화되고, 플랫폼 간 차별화된 소비자 경험 제공 및 지속 가능한 패션 트렌드 대응이 성장을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생명보험은 보장성 보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손해액 증가 가능성이 있으며, 손해율 상승으로 손해보험은 수익성 하방 압력이 있다. 특히 금융시장 변동성과 고환율 상황에 대응한 외화자산 헤지 등 해외투자 관리와 건전성 제고가 필요하다.

### ‘철강, 정유·화학’ 등 6개 산업은 도전적 한해 전망

반면, 철강, 정유·화학 등 미국 관세 부과의 직접적 영향을 받거나 산업의 구조적 이슈 등으로 하방 압력을 받는 산업군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철강산업은 일본과 중국의 저가 제품 공급 지속, 미국 수출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국내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수익성 확보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정유·화학산업에서는 글로벌 공급 과잉 장기화, 수출 감소, 실적 부진 등으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며 석유화학산업 재편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생산 효율화,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 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에서는 카드 부문의 이익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달비용 증가, 대출 규제 강화가 겹치며 저수익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정책·무역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기술·자본·산업 구조의 변화 속도가 한층 가팔라지는 가운데, 기업이 직면한 경영 환경은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적이다. 관세 강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AI 중심의 기술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산업 전반의 경쟁 구도 역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은 AI 기반 생산성 혁신, 공급망·시장 포트폴리오 재정비, 정책 변화에 대응한 사업 구조 조정, 재무 탄력성 강화 등 중장기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변화의 흐름을 기민하게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에게는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릴 것이다. 2026년은 정책보다 도약이, 안정보다 전환이 부각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산업은 붉은 말처럼 뜨겁고 역동적인 기운 속에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칼럼에 관한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ONTACT US

경제연구원 김수경 수석연구원

☎ 02-2112-3973

✉ sookyungkim@kr.kpmg.com



#### 『매우 긍정』 전망 산업 대응 전략



반도체

- AI 시대 데이터 처리 수요 대응을 위한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고성능 반도체 기술 확보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요
- AI 중심의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른 공급 제약과 단가 상승에 대응하는 효율적 공급 계획으로 수익 극대화 방안 마련 필요



화장품

- 글로벌 시장 내 K-뷰티 위상 강화와 함께 인디뷰티 브랜드 가치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국내 화장품 기업은 적극적으로 인디 브랜드를 육성·개발하며 시장 생태계 내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함
- 북미, 일본, 유럽, 중국 등 K-뷰티 주력 수출국의 중동, 남미 등 K-뷰티 잠재 수요가 존재하는 미개척 시장을 염두에 두고 시장 진출 기회를 지속 모색할 필요

#### 『긍정』 전망 산업 대응 전략



스마트폰

- AI를 필두로 한 고성능 태스크 구현 역량 확보와 폼팩터 혁신을 통한 차별화가 스마트폰 시장의 핵심 경쟁 요소가 될 것
- 우수한 AP(Application Processor) 구축 역량 확보와 신규 폼팩터 제품군 출시를 통한 수요 창출에 주목하여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 모색 필요



조선

- 국제 기구의 환경 규제 강화 기조에 대응하여 고부가가치 차세대 친환경 연료 선박에 대한 투자 강화 및 생산 포트폴리오 전환
- 글로벌 경쟁력을 기반으로 북미·유럽·동남아시아 국가의 방산 수요를 포착하고 잠수함, 호위함, 구축함 등 맞춤형 해양 방위 자산을 통한 선박 전략 인프라 공급망 구축 및 MRO 수요 확보



제약·바이오

- 신약 개발의 전 주기적 단계 내 AI 기술 고도화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전략적 R&D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과 중심의 R&D 및 디지털 전환 추진 전략 등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 필요
- 비만·대사질환 및 항암제를 비롯하여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주요 분야별 중심의 기술 및 설비 고도화 투자 기반의 차별화된 파이프라인 전략과 약가·규제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



은행

- 고환율 대응과 부실채권 관리, 생산적 금융 확대, 주주환원 강화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수익성·건전성 관리가 요구됨. 생산적 금융 관련 자본력 확충과 전담조직 신설, 리스크 관리 등 인프라 재정비 필요
- 디지털·인공지능 전환과 기업금융 부문의 전문인력 확보, KPI·조직 정비와 대출심사 관행 개선 등 내부 역량을 강화해야 함. 부수입무 확대 가능성, 지주사 시너지를 활용한 자산관리 등 신사업 검토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디지털 재무정보 혁신 선도하는 XBRL TF팀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은 재무 데이터를 표준화된 디지털 구조로 변환해 시스템이 자동 분석할 수 있는 전산 언어다. 삼정KPMG는 최근 기업의 XBRL 공시 준비 업무를 대폭 자동화하고 공시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엑셀 기반 XBRL 업무 자동화 솔루션 'XBRL 마스터(XBRL Master)'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XBRL 공시 준비 과정을 전면 자동화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호에서는 국내 최초로 SEC 재무제표 공시 지원 용역 경험을 보유하며 퀄리티 높은 XBRL 서비스를 제공하는 XBRL TF팀을 만나본다.

### # XBRL 중요성 확대, 전문가 협업으로 잠재적 리스크 최소화해야

XBRL의 중요성은 제도 변화와 함께 더욱 확대되고 있다. 2023년부터 비금융업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XBRL 주식 공시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25년부터는 금융업종에도 적용이 시작되면서 XBRL 공시는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25년 개정되어 2027년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될 IFRS 18은 손익계산서의 구조와 공시(Disclosure) 방식 전반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이익(Operating Profit)의 명확한 구분과 성과측정치(MPM) 도입 등 새로운 기준은 재무 성과의 표현 방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XBRL 기반 공시 환경 역시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기 설계 단계부터 관련 기준과 공시 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전문가와의 협업이 중요하다. IFRS 18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는 향후 불필요한 수정과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XBRL 공시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재무공시 선진화 앞장서는 XBRL TF팀!



### # End-to-End XBRL 지원, XBRL 마스터로 통합 자동화 환경 완성

삼정KPMG XBRL TF팀은 재무공시의 디지털 전환을 견인하는 핵심 조직으로 기업의 XBRL 기반 공시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SEC 재무제표 공시 지원 용역 경험을 보유한 팀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XBRL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T Audit 및 ADC 본부 인력을 중심으로 본부별 XBRL 품질 관리 담당자 30여 명과 1,500여 명의 회계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End-to-End XBRL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미국 증시에 상장된 국내 기업의 XBRL 제출 작업을 포함해 업계 최다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XBRL 관련 최고의 전문성을 쌓아오고 있다. XBRL TF팀은 단순한 공시 지원을 넘어, 업무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이는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한다. 지난 2025년 12월, XBRL TF팀은 기업의 XBRL 공시 준비 업무를 대폭 자동화하고 공시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엑셀 기반 XBRL 업무 자동화 솔루션 'XBRL 마스터(XBRL Master)'를 개발했다. XBRL 마스터 출시로 삼정KPMG가 제공하는 '스마트 리포팅 솔루션(Smart Reporting Solution, SRS)'의 기능이 한층 고도화되면서 결산과 공시 업무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자동화 환경이 완성됐다. XBRL 마스터는 삼정KPMG가 다년간 축적해 온 공시 및 용역 경험을 기반으로 개발된 솔루션으로, XBRL 구조화(Mapping)·태깅(Tagging)·검증(Validation)에 이르는 단계 전반적으로 자동화해 공시 품질 확보, 리스크 관리, 업무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로써 고객들은 XBRL 공시 준비 과정을 전면적으로 자동화해 공시 정확성, 효율성, 안정성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XBRL TF팀은 앞으로도 XBRL 마스터를 기반으로 SRS의 지속적인 기능 고도화를 추진하며, 공시 정확도와 생산성을 동시에 높여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XBRL 공시를 넘어 디지털 재무정보 활용 생태계 전반을 선도하는 전문 조직으로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신뢰받는 재무보고 환경 구축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 'XBRL TF팀'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소개

- **XBRL 주석 신규 도입 지원** - 상장법인의 XBRL 공시 환경 정착을 위한 교육부터 Mapping, Building 구축까지 토털 서비스 제공
- **Company Level Taxonomy 업데이트** - IFRS 기준서 변경 시 DART Taxonomy 업데이트 및 Company level Taxonomy 설계 지원
- **분·반기 및 기말 XBRL 태깅** - 공시 시기별 태깅(Tagging)과 밸리데이션(Validation) 수행

#### XBRL TF팀을 소개한다면?



한기원 전무(팀 리더)  
giwonhan@kr.kpmg.com

“  
기본이 바로 설 때 공시 정보가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Mapping과 Tagging은  
재무정보의 의미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서윤석 전무  
yoonsukseo@kr.kpmg.com

“  
금융사 XBRL 주석 도입을  
주도하며, 섬세한  
Mapping과 정확한  
Validation을 통해 신뢰도  
높은 공시를 실현합니다.”



신해성 상무  
haeseongshin@kr.kpmg.com

“  
공시 업무 효율화를 위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 사용자  
친화적인 업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습니다.”



#### XBRL 공시 과정 자동화한 'XBRL Master'

- **강력한 Mapping 지원** - 'XBRL Finder'를 통해 DART Taxonomy와 기업 주석을 빠르고 정확하게 매핑
- **RPA 기반 자동 업로드** - 엑셀에 입력된 Fact를 금융감독원 XBRL 작성기에 자동 반영, 인적 오류 최소화
- **풋팅(검증) 기능** - 최종 사업보고서의 공시 리스크를 줄이고 검증 시간을 단축



## 자연과 피부과학의 융합으로 글로벌 스킨헬스 혁신 이끄는 지에프씨생명과학

지에프씨생명과학(GFC Life Science)은 식물 세포 기반 바이오 소재 전문기업으로 코스닥 상장 이후 가파른 성장을 이뤄가고 있다. 특히, 1,000여 종이 넘는 원료를 자체 개발한 것은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K-뷰티의 글로벌 확장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Skin Microbiome·Plant Cell·Exosome 기반 차세대 바이오 스킨케어 전문기업

지에프씨생명과학(GFC Life Science)은 자연 기반 바이오 소재 연구와 피부과학 기술을 융합해 스킨헬스 분야의 혁신을 만들어가는 기술 중심 바이오 기업이다. 자연소재·식물세포·미생물 생태계 기반의 연구를 바탕으로 기능성 화장품·스킨케어·의료기기·바이오 원료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며 '지속가능한 아름다움'을 실현하는데 주력해왔다.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6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완료했고, 이를 계기로 글로벌 파트너십·R&D 투자·브랜드 확장 등 중장기 성장 전략 추진력이 더욱 가속화됐다.

### 기술 기반 성장의 출발점

지에프씨생명과학은 자연 원료의 순수함과 피부과학의 정교함을 결합해 피부 분연의 회복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설립됐다. 초기부터 Skin Microbiome, Higher Plant Cell, Exosome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며 지속가능성과 자연친화성에 기반한 연구 개발 체계를 만들어왔다.

또한 연구·임상·생산에 이르는 기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했으며, 병·의원 전문 분야와 글로벌 OEM·ODM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코스닥 이전 상장은 회사가 글로벌 스킨헬스 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 글로벌 기준의 생산 및 품질 인프라

지에프씨생명과학은 스킨케어 및 의료기기 제품 개발이 가능한 제조 인프라와 정교한 품질관리(QC)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수준의 생산·품질 경쟁력을 확보해왔다. 회사는 ISO 9001 품질 경영체계, ISO 22716(화장품 GMP) 준수 생산 프로세스, ISO 13485 기반 의료기기 품질 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있어 국내외 파트너사와 글로벌 브랜드가 요구하는 품질 기준에 폭넓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인증 기반의 품질 체계는 제품 개발 전 과정에서 안정성·재현성·일관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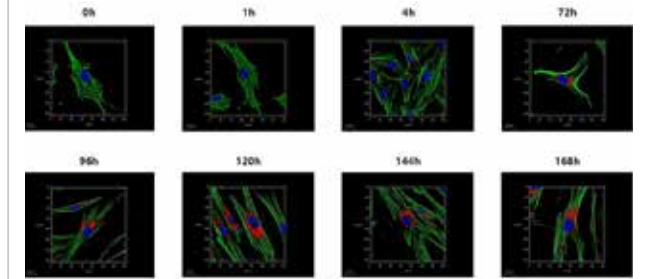
연구 단계에서 개발된 기능성 소재는 임상 검증을 거쳐 생산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되며, 이러한 연구-임상-생산의 유기적 구조는 고기능성 스킨헬스 제품의 효능과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 연구·임상 기반의 기술 경쟁력

지에프씨생명과학의 기술 경쟁력은 소재 R&D → 임상 검증 → 제품화로 이어지는 통합적 구조에 기반한다. 소재사업부는 Skin Microbiome·Higher Plant Cell·Exosome 기반의 차세대 소재 개발을 담당한다. 2,000여 종의 균주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피부 장벽 강화·항염·균형 회복 등 과학적 유효성을 갖춘 마이크로바이옴 소재를 발굴하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통해 글로벌 기능성 소재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식물세포 배양(Higher Plant Cell) 기술은 자연 추출물 대비 균질성과 안전성이 뛰어나며, 지속가능한 기능성 소재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엑소좀 분야에서는 기존 NTA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NTA 분석과 막 단백질 마커(TET8, PEN1 등) 기반 검증, miRNA 바이오마커 분석을 결합한 검증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엑소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품질·공정의 표준화를 확보하며, 식물 유래 엑소좀의 신뢰성과 시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임상사업부는 원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부과 전문의 참여 기반의 임상 설계와 병·의원 네트워크를 통한 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자사 제품뿐 아니라 외부 기업의 제품도 함께 검증하는 구조는 국내외 스킨케어·메디컬 시장의 트렌드와 기술 흐름을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 Exosome Cell uptake (hFF, x800)



3

1. 지에프씨생명과학 코스닥 상장식 2. 지에프씨생명과학 제품(지에프씨셀) 3. 공초점 현미경을 통한 엑소좀 세포 흡수 확인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재 개발 방향, 제품 기획, 글로벌 대응 전략에 필요한 실질적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지에프씨생명과학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기능성 화장품 및 의료기기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체계를 운영하며 기술 기반 제품의 신뢰성과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글로벌 스킨헬스 선도기업으로 도약

지에프씨생명과학은 식물 유래 엑소좀과 miRNA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코스메슈티컬·의료기기·의약·바이오로 확장하고 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K-GMP 품목 허가과 품질경영시스템, ISO 13485 기반의 의료기기 품질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1등급(비멸균 의료용 겔)과 2등급(창상피복제) 제품을 개발·인증 완료하였으며, 현재 4등급(필러) 제품 개발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에프씨생명과학은 의료기기 사업의 본격적인 확장을 위해 국내에서는 피부과·성형외과와 연계한 세일즈 마케팅과 ODM/OEM 기반 공급 전략을 통해 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외에서는 독점 디스트리뷰터가 보유한 클리닉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통 전개를 준비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식물 유래 엑소좀 기반 miRNA 플랫폼은 항노화·재생 애플 및 크림 등 코스메슈티컬 제품 개발을 넘어, 구강 상처 드레싱, 창상피복제, 필러 등 다양한 의료기기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술적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나아가 RNA-siRNA 치료제, 항암제 표적 전달, 백신 플랫폼 등 의약·바이오 분야 영역까지 기술 확장이 가능하다.



# 대전환의 길목, 주목해야 할 인프라 메가 트렌드는?

KPMG는 매년 인프라 산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Emerging Trends in Infrastructure」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2025년 보고서에서는 ‘The Great Reset(대전환)’을 주제로, 인프라가 단순한 물리 자산을 넘어 복합적인 경제·사회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기후위기, 공급망 불안, 기술 혁신, 지정학 리스크가 동시에 작용하는 현재, 인프라는 회복탄력성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인프라 산업 전문가를 통해 대전환기에 주목해야 할 10가지 인프라 트렌드를 보고서 내용에 기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칼럼은 2025년 7월 23일 자 한경 CFO Insight ‘대전환의 길목, 인프라의 미래를 다시 묻다’ 기고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보고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인프라 대전환 시대의 도래,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빠르고 복합적인 변화가 본격화되는 인프라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의 흐름과 징후를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전략 수립이 절실합니다. 정책, 기술, 재정, 제도적 기반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통합적 대응이 요구되며, 중장기적 시야를 바탕으로 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실행 전략 마련이 필수입니다. 단기 대응을 넘어, 인프라의 미래 역할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인프라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메가 트렌드를 10가지로 살펴봅니다.

## Q 인프라 메가 트렌드 10가지는 무엇인가요?

먼저 인프라 자산의 민영화 요구 및 민간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자금조달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경제·환경·기술 변화로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면서 탄력적 인프라 구축과 자금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해결 방안으로 정부가 보유한 인프라 자산과 민간의 장기 자본을 연결하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민영화에 대한 우려와 공공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자산 민영화 계획과 함께 1차 신규 시장에서도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전담 조직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중 갈등과 리쇼어링 등으로 복잡해진 글로벌 공급망에 대응하기 위해 표준화와 규제 정비를 통한 대응력 강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소비자는 빠른 배송에 익숙하지만, 실제 글로벌 공급망은 인프라 격차, 규제 충돌, 표준 미비 등으로 비효율적이며 탄소 배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비용 절감을 위한 산업 간 표준화와 규제 일치의 요구가 생겨나고 있으며, 해운·항공 등 자산 중심 산업을 시작으로 이러한 변화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가능성의 이상과 실행 사이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도 필요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는 조직의 장기적 생존과 직결되며, Scope 3 탄소 배출 관리, 생물다양성 보호, 자연 기반 해법 등 새로운 과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선언과 실행 사이의 간극인 ‘사라진 중간지점’을 해소하려면 실질적인 데이터 확보와

운영 체계 전환이 필수입니다.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전환 전략 강화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트윈은 이미 현실 자산과 연결돼 예측, 유지관리, 리스크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높은 비용이 장애했지만, 클라우드와 IoT 등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졌습니다.

스마트 자산에 적합한 새로운 운영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변화가 빠른 환경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역동적 전략’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계약 구조, 성과 기준, 인력 전략도 재정립해야 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드론과 센서로 교량·터널을 실시간 점검하고, 데이터 기반 유지보수로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건설 산업은 데이터와 인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고정가 계약이나 낮은 수익성, 디지털 인재 부족 같은 구조적인 한계로 혁신이 더디었지만, 최근에는 AI 기반 솔루션이나 비용을 나누는 계약 모델처럼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디지털 기술에 능숙한 인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협력사들과 함께 얼마나 유연하게 변화에 적응하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입니다.

노후 인프라를 회복탄력성 중심으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전 세계 많은 인프라가 21세기 이전에 설계된 만큼, 기후 변화나 재해 리스크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낡은 시설을 고치는 수준을 넘어서, 새로운 위험에 견디도록 구조를 재설계하고, 특히 위험도가 높은 자산부터 우선 투자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늘어나는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앞으로 인프라 투자는 확대될 전망이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장비, 자재 등의 부족으로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단순한 예산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전문 인력 양성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이 실용성과 금융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기술 비용은 안정됐지만,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빠른 전환이 어렵습니다. 특히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는 민간 투자를

## 대전환 시대, 글로벌 인프라 산업의 10대 트렌드

- Trend 1 민영화 확대에 따른 자금조달 전략 모색
- Trend 2 복잡해진 공급망, 표준화로 대응력 강화
- Trend 3 지속가능성, 이상과 실행 사이의 실천 전략
- Trend 4 디지털 트윈 통한 전환 전략 강화
- Trend 5 스마트한 자산 유형에 맞는 새로운 운영 전략 필요
- Trend 6 데이터·인재 중심으로 재편되는 건설 산업
- Trend 7 노후 인프라, 회복탄력성 중심 재설계 필요
- Trend 8 인프라 수요 증가에 공급역량 확보가 핵심
- Trend 9 실용주의 기반 에너지 전환, 협력과 금융 강조
- Trend 10 불확실성 속 해운업 전략 재정비 필요



끌어들이기 금융 모델이 필요하고, 환경 성과를 수치로 입증하는 역량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과 협력이 함께 맞물려야 가능한 일입니다.

글로벌 교역 여건 악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로 해운업계가 복합위기와 구조적 전환에 맞춰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역 갈등, 고관세, 공급망 재편 등으로 해운업은 예측이 어려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기업들은 제조 거점을 옮기고 항로와 물류 체계를 다시 짜고 있고, 해운사들도 기존 사업모델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에 지속 가능성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노후 선박 퇴출이나 대체 연료 투자 등에서 어려운 선택이 불가피합니다. 요율 변동성이 커진 지금, 점유율 확대보다 리스크 관리와 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투자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CONTACT US

Deal Advisory4 김효진 부대표

☎ 02-2112-0393

✉ hkim68@kr.kpmg.com





##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시사·경제 용어 사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용어들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이번 '알쓸사전'에서는 요즘 특히 주목받는 신생 용어를 살펴보자.

### 제미나이 최신 버전에 활용된 구글 AI 전용 칩! 'TPU(텐서 프로세싱 유닛)'



최근 구글이 인공지능(AI) 연산을 위해 자체 개발한 전용 반도체, TPU (Tensor Processing Unit, 텐서 프로세싱 유닛)가 주목받고 있어요. 구글의 최신버전 AI 모델 제미나이3에 TPU 칩을 활용했는데, TPU로 학습한 제미나이 3 프로가 오픈 AI의 최신 모델(GPT-5.1)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이며 큰 화제가 되었죠. TPU는 대규모 딥러닝 학습과 추론에 최적화된 고성능 가속칩으로, 범용 GPU 대비 행렬·텐서

연산 처리 효율이 높아 대형 AI 모델, 추천 시스템, 검색엔진, LLM, 생성형 AI 서비스 등에서 탁월한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제공합니다.

TPU의 부상으로 엔비디아 GPU가 대부분을 차지해온 글로벌 AI 칩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GPU와 TPU가 대체재가 아닌 상호 보완재로서 각자의 최적화 영역에서 역할을 나누며 동반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한편 TPU 생태계는 한국 반도체 산업과도 밀접히 연결돼 있습니다. 구글 TPU에 탑재되는 HBM(고대역폭메모리) 공급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는데, 2025년 기준 공급 비중은 SK하이닉스 56.6%, 삼성전자 43.4%로 추정됩니다. TPU에는 HBM이 6~8개 탑재되며, 이는 앞으로 새로운 반도체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AI와 사랑에 빠졌다! '파라소셜(Parasocial)'

영화 'Her'에서 주인공이 자신을 이해해주는 AI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는 한때 비현실적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는 AI와 대화를 나누고 친밀감을 느끼며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어요. 2025년 케임브리지 사전 올해의 단어로 선정된 파라소셜(Parasocial, 준사회적)은 이러한 관계를 뜻합니다. 파라소셜은 유명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AI 챗봇 등 실제로 만난 적 없는 대상에게 친밀감·유대감·정서적 연결을 느끼는 일방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1956년 시카고대 사

회학자들이 TV 시청자가 방송인과 친구 같은 심리적 관계를 맺는 현상을 설명하며 처음 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인플루언서와 스트리머, 유튜버를 향해 팬들이 '나를 알아주는 듯한' 감정을 경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어학자 콜린 맥킨토시는 "파라소셜은 2025년 시대정신을 가장 정확히 포착한 단어"라고 평가했지만, 케임브리지대 실험사회심리학과 시모네 슈날 교수는 "특히 청소년층이 AI 챗봇을 친구·상담자·심리적 위안의 대체재로 여기며 관계의 환상에 빠지기 쉽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 Happy Workplace

## 행복한 일터

### 20 Hello 2026!

말띠 삼정인, '새해 소망'을 말(馬)해봐요!

### 22 컬처한스폰

삼정인의 마음을 터치한! 가장 기억에 남은 공연은?

### 24 인재양성소

서로에게 배움과 성장을 주는 멘토&멘티!

### 26 마음온도+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길 전하는 '아름다운 봉사단'

### 28 이동규의 두줄칼럼

황금같은 시절(Golden Age)

### 30 心 Care

2026년 직장인 심리 트렌드

### 32 Samjong News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시무식 개최... 새 각오와 다짐! 외





# 말띠 삼정인, ‘새해 소망’을 말(馬)해봐요!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하여 말띠 삼정인을 만나 새해 소망을 들어봤다. 1978년, 1990년, 2002년생 말띠 삼정인들은 올해 어떤 꿈과 소망을 품었을까? 이들이 말(馬)하는 2026년의 새해 소망을 들어본다!



박우성 전무  
(B&F3)



## 미생(未生)에서 완생(完生)으로

그동안 스스로 강철 체력이라 믿으며, 건강을 마구 써 왔던 것 같습니다. 2025년 갑자기 많은 병원 청구서를 받으면서, 건강이 가장 기본적인 자산임을 새삼 느꼈습니다. 새해에는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들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삼정KPMG에서 어느덧 22번째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구성원들이 역량을 발휘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서로 연대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도록 온기를 보태는 좋은 어른이 되겠습니다.



## 일과 가정 모두 성장하는 한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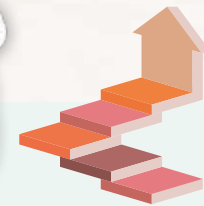
제 소망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일과 가정 모두에서 성장하는 한 해'입니다. 첫째, AI 업무 환경에서의 업무 능력 성장입니다. 최근 AI 도입과 관련하여 법인에서도 많은 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저도 AI 관련 사항을 꾸준히 학습하고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말은 프로젝트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둘째, 가족과의 행복입니다. 유치원에 진학하는 아이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응원하고,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더욱 많이 만들어 평생 간직할 행복한 추억을 쌓아가겠습니다. 셋째, 건강과 골프 실력의 향상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골프 연습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실력도 한층 더 발전시키며 활력 넘치는 일상을 만들겠습니다. 말의 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가되, 일과 가정, 건강 모두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뤄 가겠습니다!



박중민 S.Manager  
(Tax4)



김세훈 Director  
(Deal Advisory2)



## 기대를 안고 달려가기

새해에는 과거에 대한 걱정보다는, 앞으로 펼쳐질 시간에 대한 희망찬 기대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2025년 이사로 승진하며 새로운 역할을 맡았고, 2026년에는 Junior Director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대담한 시도에 나서고 싶습니다. 새로운 직급에서 시작하는 첫 해가 말띠 해라는 점도 개인적으로는 좋은 에너지로 느껴 집니다. 지난해에는 결혼이라는 큰 변화와 함께 Deal 업무에서도 감사하게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흐름을 이어 말의 해인 2026년에는 더 많이 움직이고, 더 과감하게 도전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합니다. 삼정KPMG 구성원 모두에게도 의미 있는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 건강하게 일하고 오래 달릴 수 있도록!

2025년은 개인적으로도, 일적으로도 많은 속도를 경험하며 성장과 과제를 함께 마주한 한 해였습니다. 2026년을 맞아 제 새해 소망을 한마디로 '말(馬)해'보자면, 건강하게 일하고 오래 달릴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바쁠수록 식사와 수면을 챙기고, 틈틈이 몸을 움직이는 작은 습관부터 지켜가고자 합니다. 팀원들과 더 자주 웃고,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며 응원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붉은 말처럼 힘차되 무리하지는 않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즐겁게 달려가는 2026년이 되길 바랍니다.



이아령 Director  
(SC)



유하린 인턴  
(PPC)

## 말띠답게 열심히 달리는 한 해가 되기를!

2025년은 학생 신분을 벗어나 직장인으로서는 새로운 시작을 맞은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운이 좋게도 너무 좋은 팀원분들을 만나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PPC ♥) 2026년에는 더 많은 경험과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목표로는 새로운 운동을 배워 저만의 취미도 만들고 싶습니다. 2002년은 흑마의 해였는데, 올해는 적마의 해라고 합니다! 말띠답게 열심히 달리고 크고 작은 목표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삼정KPMG 구성원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새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삼정인의 마음을 터치한! 가장 기억에 남은 공연은?

‘컬처한스폰’은 삼정인들이 직접 소개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우리만의 따뜻한 ‘문화 한 스포’를 함께 완성해 가고 있다. 이번 호 주제는 ‘삼정인의 마음을 터치한! 가장 기억에 남은 공연은?’이다. 콘서트, 뮤지컬, 연극 등 다양한 공연 콘텐츠가 쏟아지는 요즘, 삼정인들은 어떤 무대에서 가장 큰 감동을 받았을까? 삼정인이 추천하는 다양한 공연을 살펴보자.



## 강렬한 서커스, 인생 공연! 태양의 서커스 ‘쿠자(KOOZA)’

노성준 Associate (ICE2)

2025년 12월 5일, 약 2년 만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내한한 태양의 서커스 ‘쿠자’를 관람했습니다. 이 공연은 제가 본 서커스 가운데 ‘서커스의 본질’을 가장 순수하고도 압도적으로 보여준 무대였어요. 화려한 스토리 대신 곡예, 공중 묘기, 광대극, 라이브 음악이라는 태양의 서커스의 근본에 집중한 구성이라 시작부터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었어요. 고공 줄타기와 휠 오브 데스, 공중 곡예는 인간의 한계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대사 없이도 감정을 전달하는 광대 캐릭터의 연기 역시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라이브 음악과 곡예가 완벽하게 맞물리는 순간, 이 공연을 ‘본다기보다 살아 있는 무대 안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토리보다 순수한 기량과 라이브의 긴장감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인생 공연입니다.



## 5만 명이 하나 된 순간!

### 콜드플레이(COLDPLAY) 내한공연

신다운 직원 (Tax5)

8년을 기다린 콜드플레이의 내한 콘서트는 기다림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무대였습니다. 5만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울려 퍼진 ‘Viva la Vida’와 ‘Yellow’의 명곡 떼창, 불꽃놀이가 수놓은 시원한 야외 공연의 낭만, 그리고 트와이스·BTS 진·블랙핑크 로제 등 깜짝 게스트들의 무대는 그날에만 주어진 특별한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공연의 마지막 순간, 스크린과 LED 팔찌, 조명이 함께 ‘BELIEVE IN LOVE’라는 메시지를 완성하며 관객 모두에게 사랑과 연대, 희망을 전했던 장면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이와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음악 앞에서 하나가 되는 순간을 직접 목격하며, 음악이 가진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 압도적 퍼포먼스와 팬심을 사로잡은 무대!!

### G-DRAGON 2025 WORLD TOUR, [Urbemensch]

윤서연 Associate (IM1)

2025년 10월, 지드래곤(G-Dragon)의 8년 만의 월드 투어이자 신보 Urbemensch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를 다녀왔어요! 티켓은 10분 만에 매진됐고, 3만 명이 넘는 관객으로 가득 찬 공연장은 숨이 막힐 만큼 뜨거웠어요. 이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예술 경험이었어요! 지드래곤은 무대 위에서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관객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음악과 퍼포먼스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몰입감을 극대화했어요. 특히 사운드 체크 이벤트와 무대 토크를 통해 관객과 진심으로 연결되는 순간들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 세대를 넘어 서로의 꿈을 응원할 수 있는 공연!

### 뮤지컬 ‘맘마미아’

박유진 부장 (총무팀)

뮤지컬 ‘맘마미아’는 세계적인 팝 그룹 아바(ABBA)의 히트곡으로 구성되어 사랑과 가족, 성장의 메시지를 담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입니다. 저는 연기자님의 꿈을 품고 연기를 배우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아들과 함께 이 공연을 관람했는데, 공연을 마치고 극장을 나오며 아들이 “엄마, 나중에 저도 이런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모습 보여줄게요”라고 말해 그 한마디가 이번 공연을 더욱 특별하게 기억되게 해주었어요. ‘맘마미아’의 밝은 음악과 에너지는 단순한 공연 관람을 넘어, 아들의 꿈을 응원하고 그 마음에 함께 공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 나를 되돌아보게 한 공연

### 양파 전국투어 콘서트 ‘Homecoming’

박환천 Associate (B&F1)

입사 후 약 1년 간 음악을 거의 듣지 않고 지냈는데, 우연히 양파의 콘서트 소식을 접하고 공연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첫 곡 ‘다 알아요’의 첫 소절이 울려 퍼지는 순간, 잊고 지냈던 기억과 감정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무미건조했던 일상 속에서 내가 여전히 다양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공연 제목처럼, 이 무대는 과거의 나에게 돌아가는 ‘홈커밍’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삶에 지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조차 잊고 지냈던 제게, 다시 따뜻한 마음을 되찾게 해준 공연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감정과 취향을 잠시 내려놓고 살아오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 진심이 담겨진 공연!

### 2025-26 로이킴 LIVE TOUR, ‘ja, daumm(자, 다음)’

송명근 S.Senior (Tax4)

노래 한 곡, 가사 한 줄마다 그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공연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가사 하나 하나에 의미를 담아 노래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그 감정은 관객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돼 공연에 깊이 빠져들게 했습니다. 특히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을 라이브로 듣는 순간, 쉽게 정의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담담하면서도 진솔한 가사로 풀어내는 힘이 강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잔잔한 여운이 오래 이어져, 단순히 음악을 듣는 자리를 넘어 감정을 정리하고 위로받는 순간으로 기억에 남는 콘서트였습니다.



## 함께 부르며 추억하는 콘서트

### god 콘서트 ‘ICONIC BOX’

박석완 Manager (IM3)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히트곡을 따라 부르며 관객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함께 나이 들어온 가수와 관객이 호흡하며, 공연 중 재치 있는 티키타카로 분위기를 채워가는 모습도 매력적이었어요. 사실 저는 그 시절 아이돌 노래를 잘 모르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전주만 흘러나오면 ‘이 노래 알아!’하며 자연스레 따라 부르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형, 누나들이 즐겨 들던 노래가 저도 모르게 기억에 남아, 반사적으로 튀어나온 듯해요. 하하.



## 다시 돌아온 그룹, 그리고 청춘의 한 페이지!

### 오아시스(OASIS) 내한공연

연규진 Manager (CM1)

오아시스 공연을 다시 볼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2009년 투어 중 오아시스 멤버인 두 형제(노엘 & 리암 갤러거) 간의 갈등이 폭발하며 공식 해체했거든요. 15년 후 2024년 오아시스가 재결합했고, 2025년 여름부터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했어요. 이번 공연은 해체 이후 첫 내한이자, 16년 만의 한국 공연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익숙한 전주가 울려 퍼졌고, 히트곡들로 가득 찬 셋리스트는 90년대의 공기를 그대로 소환했어요. 또 하나 인상 깊은 점은 공연장의 분위기였는데, 오아시스와 함께 성장한 세대부터, 전설을 직접 보고 싶어 온 젊은 관객까지 세대가 자연스럽게 뒤섞여 떠창하는 장면은 요즘 보기 드문 풍경이었어요. 마치 청춘의 한 장면을 다시 열어본 경험으로, 재관람하고 싶은 무대였습니다!





## FY25 New Partner 멘토링 프로그램

# 서로에게 배움과 성장을 주는 멘토&멘티!

### 멘티는 나에게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게 한 '타임머신'이다.



멘토링을 통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파트너가 된 시절로 돌아간다면 당시의 아쉬움과 시행착오를 바꾸고 싶지만, 그럴 수 없기에 멘티분들께 더 많은 경험과 솔직한 조언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매력적인 메신저'가 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프로페셔널로서 전문 지식은 기본이며, 부족한 부분은 KPMG의 다양한 조직과 구성원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객이 만나서 편안함과 신뢰를 느끼고, 어려운 고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 즉 신뢰받는 전문가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독서와 신문 읽기 등을 통해 시사 상식을 꾸준히 쌓는 노력이 필요하며,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안정감과 여유가 고객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멘티들에게 받은 열정을 원동력 삼아, 법인의 지속적인 발전과 구성원들이 계속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 가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 노상호 부대표 (IM2)

### 멘토는 나에게 든든한 빛이 되어준 '등대'다.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신입 파트너에게, 멘토님은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해주신 든든한 등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업무적인 조언뿐 아니라, 파트너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균형감각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셔서 늘 든든한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파트너로서 처음 겪는 고민이 많았는데, 후배들의 시각에서 과거의 경험을 통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셨어요. 특히, 와인 클래스 이후 자연스럽게 이어진 대화 속에서 '좋은 파트너는 이렇게 사람을 이끄는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내 업무를 잘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멘토링 이후에는 '법인의 방향 속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어요. 시야가 한층 넓어졌음을 느낍니다. 저는 멘토님의 진정성과 책임감을 본받아, '신뢰와 성과를 함께 만드는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와 후배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멘토형 파트너로 성장하겠습니다.

• 양동빈 상무 (Tax2)

“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삼정KPMG의 얼굴인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4,5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앞에서, 뒤에서  
여러분을 응원하며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  
노상호 부대표님의 따뜻하면서도  
현실적인 조언 덕분에 앞으로  
삼정KPMG의 파트너로 성장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늘 솔직하게 경험을 나눠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FY25 New Partner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FY25 New Partner 그룹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파트너로서 변화된 역할에 안착하고 파트너의 3가지 역량인 Leadership, Business Insight, Business Development 역량과 자기관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이번 호에서는 멘토&멘티를 만나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점과 서로에 대한 정의를 내려봤다.

### 멘티는 나에게 영화 '오픈하이머'와 같은, 'KPMG 맨해튼 프로젝트 동료'이다.



가장 많이 나는 주제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였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함께 고민한 것은 업무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는 것, 그리고 교류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화 '오픈하이머' 속 맨해튼 프로젝트처럼, 각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몰입하고 최고의 전문가들과 깊이 교류할 때,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멘토링을 통해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깊은 교류'라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멘토링은 'KPMG의 맨해튼 프로젝트'였습니다. 또한, 신입 파트너분들이 지닌 열정과 에너지가 법인에 가져오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모두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 멘토링으로 얻은 깨달음이 법인과 제 커리어의 발전과 진보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김진원 부대표 (Deal Advisory3)

### 멘토는 나에게 협업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해준 '마스터 셰프'이다.



멘토는 '마스터 셰프'입니다.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재료를 모아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멘토링 과정에서 신선한 시각과 함께 본인의 경험을 양념처럼 곁들여 주시며, 멘티들이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거대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진취적인 논의를 이끌어 주셨어요. 덕분에 나 혼자 아닌 우리 조직의 전문가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경계를 허물고 시너지를 만드는 연결고리가 되고 싶습니다. 멘토링에서 배운 협업의 정신을 바탕으로 타 본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도 고객에게 삼정KPMG만의 입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또한, 선배들에게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로, 후배들에게는 믿고 따를 수 있는 따뜻한 리더로 성장하겠습니다!

• 김익신 상무 (B&F3)

“  
멘토와 멘티로 함께한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법인 내외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말 많은 멘토와 프로그램 기간 고생해  
주신 멘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부대표님, 아낌없이 경험과 지혜를  
나눠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취적인 시각과 포용력 있는  
리더십을 본받아, 법인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후배들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멋진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사랑나눔봉사단을 소개합니다!

#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길 전하는 '아름다운 봉사단'

사랑나눔 활동에 앞장서는 삼정KPMG는 2023년에 임직원 봉사단 '사랑나눔봉사단'을 신설했다. 현재 8개 봉사단이 환경 정화, 문화재 보호, 아동 멘토링, 보육원 봉사, 유기견 보호 등 여러 가지 주제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아동보호시설(보육원)에 방문하여 아이 돌봄과 청소 등의 봉사를 진행하는 '아름다운 봉사단'을 소개한다.



### # 아이들의 일상에 스며드는 따뜻한 동행

작은 손을 잡아주는 일, 아이들의 웃음에 귀 기울이는 일, 따뜻한 한 끼를 함께 나누는 일. '아름다운 봉사단'은 이러한 소소하지만 진심 어린 행동들이 모여,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봉사단이다. 매년 2~3회 정기적으로 상록보육원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점心和 간식을 제공하고, 생활환경을 정리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비록 자주 모이는 대규모 봉사단은 아니지만, 작은 정성과 꾸준한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울림이 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소수의 인원이 뜻을 함께하고 있다.

### # 작은 실천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

**서은아 상무**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봉사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함께하는 동료들과 나눔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특히 일상에서 감사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체감했고, 동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회사 생활에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정원재 Senior** 저는 평소 아이들을 좋아하기에, 여러 봉사단 가운데 보육원 봉사활동을 하는 아름다운 봉사단에 자연스럽게 지원하게 됐어요. 봉사단 활동을 하며 식당 청소, 화단 정리,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기와 같은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쾌적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꼈고,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아이들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원용 전무** 저도 공감합니다! 아주 작은 도움이지만 아이들의 생



25년 11월 - 간식 및 서적 나눔 활동



25년 6월 - 보육원 잡초 제거 활동

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는 생각이 제 삶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바쁜 업무에 지쳐 있다가 선한 에너지를 가진 아름다운 봉사단 멤버들을 만나서 함께 땀 흘려 일하는 것도 큰 즐거움으로 다가옵니다.

### # 아이들이 기쁘면 우리도 기뻐요!

**오다영 Senior** 보육원 봉사를 하며 거창한 활동은 아니지만, 잡초를 뽑고 낙엽을 치우며 공간을 정리하는 일부터 크리스마스에는 초콜릿으로 트리 장식을 만들어 함께 꾸미는 활동까지, 소소한 일들을 성실히 참여해왔어요. 특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초콜릿으로 별 모양 장식을 만들어 트리를 꾸민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선물 포장도 급히 마무리하느라 정신없었는데, 아이들이 좋아할까? 걱정을 했어요. 하지만 청소를 마친 후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고, 모든 과정이 더욱 뜻깊게 느껴졌어요. 첫 봉사활동 날이



23년 12월 - 봉사단의 첫 활동



24년 12월 - 크리스마스 행사 봉사

었는데, 지금까지도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이주희 Senior** 저 역시도 크리스마스 행사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이들은 성격이 제각각이라 수줍게 인사하는 친구도 있고, 활짝 웃으며 감사 인사를 전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예뻐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도 잘 자라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뿌듯하고 따뜻했습니다!

**정원재 Senior** 저는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한 남자 아이가 본인이 받은 민생지원금으로 구매한 뿌링클 치킨을 우리 봉사단원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던 일이 기억에 남아요. 오랜만에 생긴 용돈으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치킨을 골랐다는 점도 귀엽게 느껴졌고, 그 치킨을 나누어 주는 모습에서 아이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였어요.

### # 바쁜 일상 속 따뜻함과 행복 더하기!

**이주희 Senior** 우리 모두 바쁜 일상 속에서 '나 살기도 바쁜데 봉사까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공감되는 이야기지만, 봉사를 통해 느끼는 따뜻함과 행복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법원에서 진행되는 일회성 봉사활동도 많으니 부담 없이 한 번 참여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서은아 상무** 봉사활동은 단순히 돕는 것을 넘어, 함께 웃고 배우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상록보육원에서 아이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 함께하는 동료들과의 협력은 큰 행복을 줍니다. 더 많은 삼정인들이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원용 전무**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힘을 모아 우리가 사는 사회를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같은 생각을 가진 선한 사람들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아름다운 봉사단'과 함께해요!

앞으로도 상록보육원에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계절별로 필요한 활동(예: 봄철 텃밭 가꾸기, 겨울철 크리스마스 준비)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조금씩 확대하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서정혁 전무 jeonghyukseo@kr.kpmg.com  
이지현 이사 jeehyunlee@kr.kpmg.com



## 황금같은 시절 (Golden Age)

유대인의 경전 <탈무드>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인생이란 문틈으로 백마가 달리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 짧은 인생에서도 누구에게나 잘나갔던 전성기(全盛期·heyday)가 있게 마련이다. 과거 톱스타 전도연은 인터뷰에서 “저는 제 전성기를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아! 그녀에겐 매일매일이 전성기였다는 말인가. 그리 보면 전성기란 쇠락에 굴복한 패배자의 언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뉘앙스는 다르지만 이 대목에서 대부분 청춘들은 <화양연화(花樣年華)>를 떠올리게 된다. 지난 2000년 최초 개봉된 왕가위 감독의 영화로 유명해진 이 말은 한마디로 내 인생의 ‘꽃 같은 시절’을 의미한다. 직역하면 ‘꽃(花) 모양(樣)의 해(年)와 시절(華)’이란 뜻으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시절, 즉 꽃처럼 화려한 청춘의 순간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 1960년대 홍콩을 배경으로 장만옥과 양조위가 주연한 이 영화는 가장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애뜻하고 덧없었던 사랑의 순간을 그려내었다.

##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내 인생에 전성기는 내일이다”



### # 오래된 미래

중요한 것은 과거는 해석에 따라 바뀌고, 미래는 결정에 따라 바뀌지만 ‘현재’는 지금 행동하기에 따라 바뀐다는 점이다. 그러나 과거(P)~현재(P)~미래(F)란 것도 깊이 생각해보면 매우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다. 예컨대 “과거는 당신 앞에 있고 미래는 당신 뒤에 있다”라는 문장을 보라. 이는 남미 인디언 부족의 속담으로 알려진 건데 서양식 시간관(미래가 앞, 과거가 뒤)과 반대의 세계관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따지고 보면 오늘은 내일의 어제다. 또한 미래학자들에게 있어 미래란 새로운 현재(new reality)이다. 또한 과거란 단순히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오래된 미래(ancient futures)’라고도 한다. 노후(老後)가 그 중에 하나다.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외길이다. 지금 이 단계를 지나면 다음 단계가 온다는 것을 모두 알고는 있으나 짐짓 모르는 척할 뿐이다. 이 말은 결국 진정한 미래는 오랜 지혜 속에 있다는 의미다. 다만 “노년의 비극은 아직 젊다는 데 있다”는 오스카 와일드의 말처럼 대부분은 “나는 아직 젊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한편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로선 대부분 과거는 아름답고, 현재는 고통스러우며, 미래는 불확실하다. 마포 대포집 벽에 붙어 있던 글귀도 인상적이다. “청년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중년은 현재를 이야기하며, 노년은 왕년을 이야기한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동양학 최고봉 노자는 <도덕경>에서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고, 평안한 사람은 현재에 산다”고 설파하였다. 이것은 어찌 보면 고대 로마의 서사시인 호라티우스가 외친 ‘카르페 디엠(Carpe Diem)’과도 일맥상통하는 통찰이다.

### # 내 인생 최고의 날

세계적인 명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비비안 리(스칼렛 오히라 역)는 내일 아침 먹거리조차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외친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Tomorrow is another day)!” 지금 이 시간에도 반지하 단칸방에서 저 유명한 “The Best day is yet to come(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이란 글귀를 부여잡고 미래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를 꿈꾸는 수많은 이들이 있다.

서양 속담에는 “He who laughs last, laughs best”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노름판에는 ‘첫끝발이 개끝발’이란 표현이 있다. 결국 오늘 잘나간다고 자만할 것이 아니며, 못 나간다고 좌절할 일도 아니다. 아하는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큰 인기를 끈 <흑백요리사>에 나오는 대사다. “제 인생 요리는 제가 만드는 다음 요리조. 예전 건 다 지나간 거고 레퍼런스일 뿐이죠. 가장 중요한 건 이 다음에 나가는 음식밖에 없어요.”

전설의 골퍼 벤호건은 골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샷은 바로 그 다음 샷이라고 했다. 많은 것을 이루고 한 분야에서 인정받으며 성공한 노년의 대가에게 물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때는 언제였나요?” 돌아온 그의 대답은..... “내일(tomorrow)입니다.”

### 저자 소개

#### 이동규 교수

칼럼니스트  
베스트셀러 저자



인기 칼럼니스트(조선일보·헤럴드경제/국제 PEN클럽 정회원) 및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초대형 교보 <광화문글판> 선정 작가이다. 현재 서울벤처대학원 초빙교수,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고문, 대통령직속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 유니크한 언어의 쇼츠, 「두줄칼럼」은 인문·경영의 융복합 구성으로 AI 시대 인간만의 생각 품질을 높이고 영감을 주는 지적 아포리즘 결정체다.





# 2026년 직장인 심리 트렌드

새해가 밝았다. 2025년은 AI를 비롯한 신기술이 일상과 업무 전반에 본격적으로 활용된 해였다. 2026년 역시 다양한 신기술의 등장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직장인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야 할까? 전문 심리상담가의 이야기를 통해 그 해답을 들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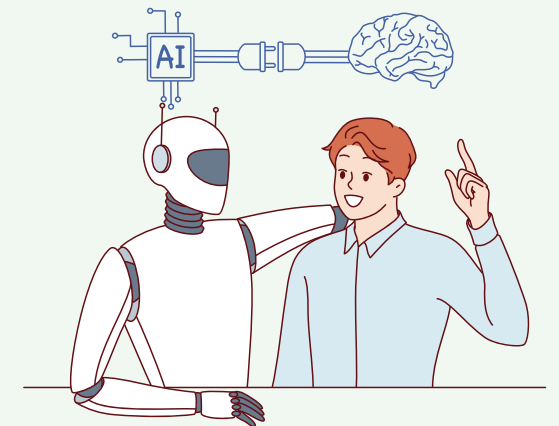
2026년, 우리는 단순히 업무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넘어 ‘나’라는 존재를 정의하는 방식 자체가 재편되는 심리적 변곡점에 서 있다. 국제 조직심리학회와 경영학계가 주목하는 2025~2026년 연구 주제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경계의 해체’와 ‘자원의 보존’이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심리적 자원을 지키기 위해,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흐름을 짚어본다.

우리는 AI와 함께 일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이제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의사결정을 함께 수행하는 협업 파트너, 즉 ‘Human-AI Teaming’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변화는 업무 효율의 문제를 넘어, ‘업무적 능력’과 ‘전문가로서의 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실존적 질문을 던진다.

많은 직장인이 경험하는 ‘AI 정체성 위협(AI Identity Threat)’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나보다 더 정확하고 빠른 AI가 존재한다면, 나의 직업적 능력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단순한 직무 불안을 넘어 자존감의 흔들림과 존재론적 불안을 야기한다. 이는 기술 변화 그 자체보다도,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비롯된 테크노 스트레스(Techno-stress)의 핵심 동인이다.

두 번째 흐름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점점 더 강력해지는 ‘마이크로 스트레스(Micro-stress)’의 확산이다. 과거의 번아웃이 대형 프로젝트나 과중한 업무량 같은 ‘큰 사건’에서 비롯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주범은 작고 사소하지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자극들이다. 쏟아지는 메신저 알림, 협업 과정에서의 미묘한 불통, 부정확한 AI의 피드백은 모두 우리의 인지 자원(Cognitive Resource)을 조금씩 갉아먹는다. 마치 스마트폰에서 배경 앱들이 눈에 띄지 않게 배터리를 소모하듯,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신적 에너지를 잃어간다.

세 번째 변화는 ‘직무(Job)’라는 개념 자체의 흔들림이다. 전통적인 직무기술서가 의미를 잃고, 프로젝트 단위로 필요한 스킬을 조합하는 ‘스킬 중심 조직(Skills-Based Organization)’으로의 전환은 유연



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심리적 부담을 낳는다. 고정된 역할이 사라질수록 우리는 쉽게 역할 모호성을 경험하고, “나는 조직에서 어떤 사람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소속감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인간은 본래 경계와 틀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존재이기에, 이러한 구조의 해체는 근원적인 불안을 자극한다.

이제 우리는 직함이 아니라 나만의 ‘스킬 포트폴리오’로 자신을 설명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연 단위 평가에 기대기보다,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주어지는 온디맨드 피드백(On-demand Feedback)을 통해 자신의 성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태도가 중요해진다. 유동적인 환경 속에서도 자아 효능감을 유지하려면, 외부의 고정된 틀보다 스스로 축적해 온 역량의 흐름을 내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경계가 사라진 시대에 중심을 잡는 방법이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2026년을 살아가는 직장인에게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키워드는 ‘본질과 평온’일지 모른다. 정보 과잉과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소음 속에서,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선별하고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연습.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 애쓰기보다, 자신의 에너지가 가장 빛날 수 있는 본질적인 영역에 집중하려는 시도. 이러한 태도가 AI 시대에 인간이 중심을 유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속 가능한 성취를 이루는 하나의 가능한 방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 Profile

### 설진미

성균관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고려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으며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임상심리실에서 슈퍼바이저로 경력을 쌓았다.

현재는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10년간 일하며 심리상담, 조직컨설팅, 강좌 및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조직에 속한 직장인들을 만나 삶의 불안과 고통, 갈등을 성찰하고 성장을 모색해 왔으며, 조직문화를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

삼정KPMG  
전임 심리상담사



# SAMJONG-NEWS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시무식 개최 ...  
새 각오와 다짐!**



삼성KPMG는 1월 5일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시무식'을 개최하고, 새해를 향한 힘찬 출발을 알렸다. 첫 순서로 2025년 한 해 동안 구성원들이 직접 선정한 법인의 주요 뉴스를 영상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Tax2 홍승모 상무와 IM4 김연정 상무가 파트너 신년 인사를 전했다. 홍승모 상무는 최근에 읽은 책의 내용을 인용하며, 뇌는 혁신과 도전을 불편해하고 익숙한 패턴을 선호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반복적인 패턴을 과감히 버리고 '반복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 새로운 변화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김연정 상무는 개구리가 점프하기 직전 움츠리는 순간에 가장 많은 근력과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비유를 들며, 2025년 이 도약을 위해 힘을 축적한 시기였다면 2026년은 본격적인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열정과 추진력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처럼, 삼성KPMG가 큰 발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파트너 신년 인사와 함께 구성원들의 새해 소망을 담은 영상이 상영된 후, 김교태 회장의 신년 메시지가 이어졌다. 김교태 회장은 "2025년은 외부적으로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법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특히 People First 가치를 바탕으로 우수 인재들이 삼성KPMG에서 꿈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삼성KPMG의 미래를 이끌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교태 회장은 2026년을 맞아 세 가지의 노력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2026년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시기"라며, "우리는 미리미리, 빨리빨리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열정을 바탕으로 Go-to-Market 전략을 실천해야 한다"고 전했으며, "KPMG의 5 Values 중 하나인 Together의 의미를 되새기며 개인이나 자신만의 이익이 아닌, 우리 모두를 생각하며 성과를 이뤄가는 파트너십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을 강조했다. 이 세 가지 노력으로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 Impossible을 I'm Possible로 바꾸고, 2026년의 멋진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다짐과 함께 힘찬 박수로 시무식을 마무리했다.

## '제12회 콘텐츠 산업 세미나' 개최



삼성KPMG가 2025년 12월 11일 서울 강남파이낸스센터 본사에서 '제12회 콘텐츠(게임·미디어·플랫폼) 산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업 재무담당자에게 콘텐츠 산업의 최신 산업 동향과 이슈를 공유하는 행사다. 사업전략, 인공지능(AI) 활용, 회계·세무 이슈, 개정 상법 대응 등 실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삼성KPMG 경제연구원 이효정 상무는 콘텐츠 산업 사업전략과 AI 투자동향, 컨설팅부문 이준기 상무는 콘텐츠 산업 내 AI 기반 업무혁신 사례를 소개했으며, 감사부문 설원 상무는 'IFRS 18 중심 회계이슈와 최근 감리동향', 세무부문 김병국 상무는 '콘텐츠 산업 최신 세무이슈',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심정훈 상무는 '개정 상법과 대응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Contact: ICE1 설원 상무  
wonseol@kr.kpmg.com

## '스테이블코인 시장 활성화와 정보보안 과제' 토론회 열어



삼성KPMG가 2025년 12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활성화와 정보보안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주최하며 삼성KPMG와 법무법인(유) 린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삼성KPMG와 법무법인(유) 린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확대를 위한 제도·기술적 방안과 블록체인 환경에서 요구되는 정보보안 전략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지급결제 혁신, 규제 체계 설계, 보안 리스크 대응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정책·산업 대안을 제시했다.

\*Contact: 스테이블코인 자문팀 황태영 상무  
taeyounghwang@kr.kpmg.com

## 공공기관 대상 'K-IFRS 18 세미나', 도입에 따른 이슈와 대응 방안 제시



삼성KPMG는 2025년 12월 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강당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K-IFRS 18호 세미나에서 관련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와 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공동 주관했으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85곳의 회계결산 담당자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삼성KPMG IGH본부 노영일 Director는 연사로 나서 K-IFRS 18호 도입에 따른 주요 개정 사항과 영업손익의 정의 및 분류 변경 사항, 그리고 IFRS 18 도입이 결산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K-IFRS 18호 적용이 단순한 회계 기준 변경을 넘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 체계와 내부 성과지표 관리, 공공요금 산정 등 주요 의사결정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다.

\*Contact: IGH본부 범승형 상무  
sbeom@kr.kpmg.com /  
노영일 Director yno@kr.kpmg.com

## FY25 신입 컨설턴트 온보딩 프로그램 진행



1월 5일부터 7일까지 총 3일간, 신입 컨설턴트 35명을 대상으로 온보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월 5일에는 삼성KPMG 본사에서 컴플라이언스 교육이 진행됐다. 신입 컨설턴트들은 윤리의식과 사내규정,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에 대해 학습하며 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1월 6~7일까지는 경기도 광주 군지암 리조트에서 1박 2일간 입문교육이 열렸다. 입문교육은 법인에 대한 소속감과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신입 컨설턴트로서 성장 비전을 수립하는 한편, 컨설팅 기본역량과 비즈니스 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인 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세션을 비롯해 비즈니스 매너 및 커뮤니케이션,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법, AI 시대 신입 컨설턴트에게 요구되는 핵심 스킬 등 다양한 주제의 세션이 진행됐다. 특히 환영 축하 만찬에 앞서 진행된 김교태 회장의 입사 축하 메시지는 신입 컨설턴트들에게 삼성KPMG의 방향성을 직접 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환영 축하 만찬에는 법인 리더들도 참석해 신입 컨설턴트의 입사를 축하하고 성공적인 첫 출발을 응원했다.



## 에너지·자원 컨설팅 부문 고객 평가 1위

KPMG가 글로벌 에너지·자원 산업에서 고객 평가 기준 '가장 인지도 높은 컨설팅 기업'으로 선정됐다. KPMG는 글로벌 애널리스트 그룹 소스 글로벌 리서치(Source Global Research)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 'Perceptions of Consulting in Energy & Resources in 2025'에서 에너지·자원(Energy & Resources) 부문 고객 평가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전 세계 에너지·자원 산업에 종사하는 333명의 임원과 고위 관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컨설팅 서비스 기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96%가 연 매출 5억 달러 이상 기업에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KPMG는 이번 조사에서 에너지·자원 부문 ▲가장 권위 있는 컨설팅 기업 ▲가장 높은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 품질을 갖춘 기업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컨설팅 기업 등 5개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인지도는 물론 서비스 품질과 전문성 전반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 삼성KPMG·아토즈 컨설팅, 한국·싱가포르 투자 협력 강화



2025년 12월 4일, 삼성KPMG는 싱가포르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시장 진출 자문 전문기업인 아토즈 컨설팅과 '한국-싱가포르 간 투자 기회 확대와 글로벌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싱가포르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개방적 비즈니스 환경을 기반으로 글로벌 고액자산가들이 패밀리오피스를 설립하는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한국과 싱가포르 간 교차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국내 기업과 고액자산가의 글로벌 자산관리·해외 진출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자산관리 및 포트폴리오 전략 제공, 싱가포르 패밀리오피스 설립과 운영 지원, 현지 라이선스 취득과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체계 수립 등 다양한 자문 서비스를 공동 제공한다.

### INTRODUCE

신규 영입 파트너를 소개합니다!

## TC본부 최근홍 전무 영입

삼성KPMG는 2025년 12월 15일자로 TC본부에 최근홍 전무를 영입했다.

최근홍 전무는 SAP Korea, IBM Korea, 삼성SDS 등에서 다양한 SAP 솔루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ERP 및 기준정보 진단, 시스템 구축·고도화, 전자 IT 아키텍처 수립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최근에는 SUSE Korea RVP 겸 한국 지사장을 역임하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전략을 이끌었다. 그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삼성KPMG Consulting 부문의 디지털·IT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관련 사업의 성장과 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최근홍 전무는 "삼성KPMG에서 만들어갈 미래가 무척 기대된다"라며, "삼성KPMG가 컨설팅 분야의 마켓 리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사 소감을 전했다.



최근홍 전무 (TC본부)

경력

- SUSE Korea 지사장 (2020~2025년)
- SAP Korea CoE, 클라우드, 서비스 (2016~2020년)
- 삼성 SDS, 솔루션 컨설팅 (2010~2016년)

## 대내외 강연 통해 '2026 경제 및 산업 전망' 제시



삼성KPMG 경제연구원은 2026년 경제 및 산업 전망을 주제로 한 대내외 강연을 진행했다. 먼저 2025년 12월 17일에는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열리는 유튜브 온라인 라이브 강연 '화산 일주(화면 켜 김에 산업일주)'를 통해 경제연구원 이효정 상무와 김규림 상무가 연사로 나서, 2026년 한국 경제를 둘러싼 주요 현안과 산업별 전망을 살펴봤다.

이어 12월 11일에는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알쓸산지(알면 쓸데 있는 산업지식)'를 온라인 팀즈 라이브로 진행했다. 경제연구원 강민영 책임연구원, 노승환 책임연구원, 이아름 책임연구원이 강사로 참여해 2026년 한국 경제의 핵심 이슈와 주요 산업별 전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 8주간의 'AI Run & Learn 챌린지 이벤트',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만든다!

일상의 AI 근육을 강화하는 1주 1미션 챌린지 — Part ②

삼성KPMG는 AI를 단순한 교육이 아닌 **직접 경험하고 체화하는 이벤트**로 설계해, 임직원들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25년 11월부터 8주간 진행된 'AI Run & Learn 챌린지 이벤트'는 매주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원들이 AI를 직접 사용하고, 결과를 공유하며, 서로의 활용 방식을 확산시키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5~8주 차 미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5주 차 미션 — 업무 자동화의 출발점이 된 'AI Agent 셋팅하기'** 5주 차 미션은 반복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나만의 AI Agent를 직접 구현해보는 경험에 초점을 맞췄다. 참가자들은 앞선 4주 차에서 설계한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실제 업무 흐름에 적용 가능한 자동화 챗봇을 만들어 AI를 실무 파트너로 설정하는 경험을 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비즈니스 이메일 초안 작성 자동화', 'GTC 착수 및 자료 요청', '의사록 검토 및 회계 이슈 분석' 등 각자가 만든 챗봇 지침 화면과 함께 실제 활용 가능한 관련 링크를 제출했다.

**6주 차 미션 — 실전처럼 연습하는 AI 기반 '비즈니스 외국어 롤플레이'** 6주 차 미션은 AI를 활용해 비즈니스 영어 상황을 연습하는 '비즈니스 외국어 롤플레이'으로 구성됐다. 단순한 영어 학습이 아닌, 회의·이메일·프레젠테이션 등 **실무 맥락 중심의 롤플레이**를 통해 AI의 활용 가능성을 체감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ChatGPT, Gemini, 뤼튼 등을 활용하며 영어 회의 시뮬레이션, 이메일 작성, 프레젠테이션 연습 등 다양한 상황을 실전처럼 경험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AI를 **개인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코치**로 활용하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익혔다.

**7주 차 미션 — 리더십을 성장하는 'AI 코칭 이벤트'** 7주 차 미션은 업무 스킬을 넘어, AI를 활용한 자기 성찰과 리더십 인식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참가자들은 AI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강점과 보완점을 도출하며 성장 방향을 탐색하는 경험을 했다. 생성형 AI와의 대화 기록이나 분석 결과를 공유했으며, 이를 통해 시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생각을 정리하고 관점을 확장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8주 차 미션 — 8주 경험을 하나로 연결한 '미래 시나리오 이벤트'**

모든 미션의 대미를 장식한 8주 차는 지난 8주간의 경험을 통합해, AI와 함께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보는 **마무리 이벤트**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시가 분석한 개인별 리더십 스타일을 바탕으로 성장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AI 활용 방향을 정리했다. 참가자들은 미션을 통해 느낀 변화와 인사이트를 되짚으며, 이를 **비전 보드** 형태로 시각화해 공유했다. 이는 단기 이벤트를 넘어, AI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개인적 선언의 장이 되었다.

2025년 11월 3일부터 12월 22일까지 8주간 진행된 'AI Run & Learn 챌린지 이벤트'에는 294명이 8주 전 과정을 참여했으며, 총 참여 건수는 3,493건으로 구성원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매 미션을 완료할 때마다 파란행복 커피 쿠폰을 제공했으며, 8주 미션을 모두 완주한 참가자에게는 삼성KPMG 자체 제작 후리스를 선물로 증정해 이벤트로서의 몰입과 완주 경험을 강화했다.

챌린지에 참여한 삼성인들은 **"다양한 AI 활용 사례와 툴을 접할 수 있었다"**, **"샘플 가이드 덕분에 스스로 학습하기에 유익했다"**, **"짧은 시간 투자로도 AI와 친숙해질 수 있는 이벤트였다"**, **"새로운 AI 툴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활용도를 높이는 출발점이라고 느꼈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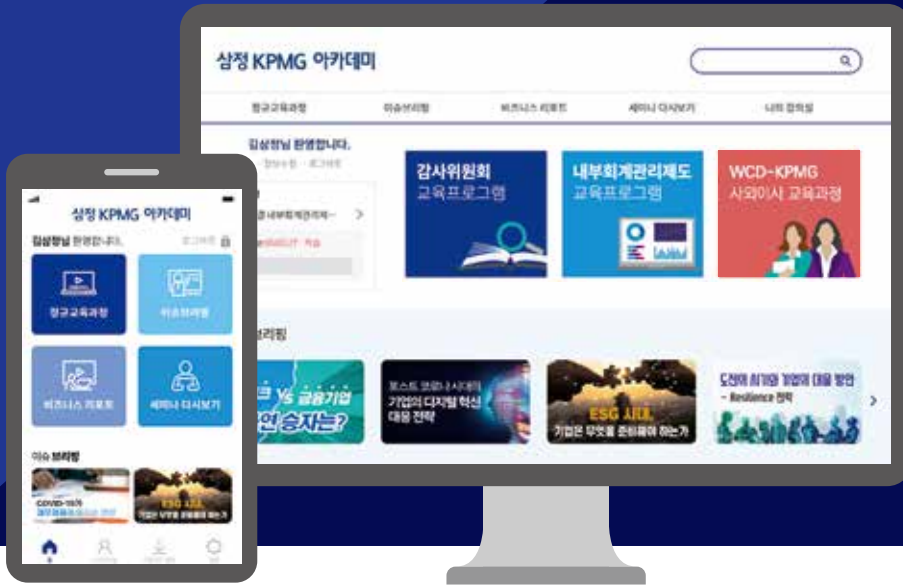
## 경영 패러다임 변화 속 지속가능한 성장 아젠다 제시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과  
산업별, 분야별 인사이트를 포함한 지식 콘텐츠 제공

# 온라인 지식 콘텐츠 플랫폼 삼성KPMG 아카데미



삼성KPMG 아카데미



정규 교육 과정

- 감사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프로그램
- WCD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

이슈 브리핑

- 국내외 주요 트렌드와 산업별 이슈를 영상 콘텐츠로 제공

비즈니스 리포트

- KPMG의 발간물과 분야별 분석 보고서 저장소

세미나 다시보기

- 삼성KPMG 주요 세미나 다시보기

접속 방법

[www.kpmgacademy.co.kr](http://www.kpmgacademy.co.kr)

포털사이트에서 '삼성KPMG 아카데미' 검색

이용 대상

누구나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 가능



'Channel' 구독 정보 변경/ 신규 구독/ 구독 취소 안내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는 분, 또는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변경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E-mail: [kr-fmchannel@kr.kpmg.com](mailto:kr-fmchannel@kr.kpmg.com) Tel: 02-2112-7567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